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와 그 서지사적 의의*

A Study on the Increase of the Buddhist Publication in the
16th Century and Its Significance of the Bibliographical History

손 성 필 (Sohn, Seong-Phil)**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16세기 불서 간행 증대의 서지사적 의의 |
| 2. 조선시대 불서 간행의 양적 추이 | 5. 맺음말 |
| 3. 16세기 불서 간행의 양적 증대 | <참고문헌> |

< 초 록 >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서의 간행 시기를 분석함으로써, 16세기에 사찰판 불서의 간행량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밝히고, 그 서지사적 의미에 대해 시론하였다.

현존 조선시대 불서의 간행 시기 분석을 통해 볼 때, 16세기에 사찰판 불서의 간행이 크게 증대되었다. 중종중반인 1530년대에 그 간행이 4배 가량 증가하여 17세기까지 그 간행량이 대체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임진왜란 전인 1570~80년대, 선조 전반은 증가된 간행량의 두 배에 이르는 불서가 간행된 시기로서, 조선시대를 통틀어 불서 간행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16세기가 임진왜란 이전임을 고려한다면, 16세기는 17세기에 비해 더 많은 불서가 간행된 시기였을 가능성이 큰 한편, 불서 간행이 뚜렷한 증가 추세인 시기였다. 이는 중종대와 선조전반이 불교계의 극심한 침체기였다고 하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불교사 인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므로, 근래에 불교사적 관점의 해명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서지사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해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四書의 간행량 추이, 서적 간행과 보급에 관한 당대의 기록, 유교전적의 간행 경향, 중국의 출판물 간행 추이 등을 통해 볼 때, 16세기는 불서 뿐 아니라 서적의 간행과 보급이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는 16세기에 서적 간행과 보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데 대한 근거인 동시에, 그러한 거시적인 문화사 변동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개별 판본과 인쇄기술 중심의 연구, 유교서 중심의 조선시대 서지사 이해로는 해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므로, 서지문화사적 관점에서 그 양상과 의미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要語: 불교전적, 서적 간행, 사찰판, 왕실판, 관판, 16세기, 간행량, 서지사(書誌史), 출판문화사

* 이 논문은 손성필의 박사학위논문인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동국대 사학과, 2013)의 117-129쪽 수록 내용을 일부 수정·재편한 것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son@itkc.or.kr)

접수일: 2013년 5월 4일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26일

<ABSTRACT>

Bibliographical analysis on the existing Buddhist texts from the Joseon Korea suggests that the Buddhist society in the 16th century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quantity of published materials. In the 16th century, a great number of Buddhist texts were published and this period can be called as the era of Buddhist publication in the entire history of the Joseon Korea. In the 1530s, a significant quantity of Buddhist text was published and it was quadrupled compare to the earlier period. The size of Buddhist publication stayed unchanged till 17th century. In 20 years from 1570s to 1580s, before the 1592 Invasion of Hideyoshi, the publication quantity was doubled and a massive amount of Buddhist book was published during that time.

Existing accounts of Buddhist history and general understandings of bibliographical history can not properly explain this phenomenon, the increase of Buddhist publication at the time. When one considers the publishing fashion of Confucian texts and Chinese publishing trend at the time,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the 16th century witnessed the general increase of publication and popularization of boo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overall examination of the expanding tendency of the publication in the 16th century and elucidate its significance of the history of publishing culture.

Key words: Buddhist texts, publication of books, temple publications, royal publications, governmental publications, the 16th century, quantity of publication, the bibliographical history, the history of publishing culture

1. 머리말

한국의 고전적 중에 불교전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도서관 등의 여러 고전적 소장처에는 많은 불서가 수장되어 있으며, 그 불서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사찰에서 간행된 것이다. 조선초기에 국가나 왕실에서 간행된 불서는 희귀하며, 조선중기 이후 사찰에서 간행된 수많은 불서들이 현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선시대 사찰판 불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개별 판본에 대한 서지학계의 연구성과는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으나, 그 서지·문화사적 의미를 논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학계나 불교학계에서 또한 그 연구가 부진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이는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침체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그 연구가치가 저평가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근래에 조선시대 사찰판 불서 간행의 불교사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

그런데 이 조선시대 사찰판 불서의 간행 시기를 분석해보면, 16세기에 사찰에서 다량의 불서가 간행되었고, 또 뚜렷한 증가 추세였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중종대 중반인 1530년대에 간행이 급증한 후 임진왜란 이후까지 대체로 그 간행량이 지속되었고, 특히 임진왜란 전인 1570~80년대, 선조대 전반에 가장 많은 양의 불서가 간행되었다. 이는 우선 조선시대 불교사 전개에 대한 일반적 이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써, 조선시대 불교사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불교사적 관점의 해명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²⁾ 그러나 불서 간행의 증대는 불교사적 관점으로만 해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며, 서지사적 관점의 설명도

1) 남희숙,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眞言集과 儀式集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국사학과, 2004). ; 정병삼, “몽산 저술의 간행과 16세기 조선불교,” 『불교학연구』 18(불교학연구회, 2007). ; 이종수,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찰과 백암성종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21(불교학연구회, 2008). ; 조명제, “栢庵性聰의 佛典 편찬과 사상적 경향,” 『역사와 경계』 68(부산경남사학회, 2008). ; 손성필, “『眞心直說』 판본 계통과 普照知訥 찬술설의 출현 배경,” 『한국사상사학』 38(한국사상사학회, 2011). ;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 사학과, 2013).

2) 손성필, 앞 논문, 2013.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전의 서적은 현전하는 것이 희소하다고 하는 일반적 인식, 유교전적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조선시대 서지사 이해 등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목판이나 활자를 통한 전근대의 서적 간행은 이른바 상층문화 행태이자 정치·사회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 유념한다면,³⁾ 그 출판문화사적 의미 뿐 아니라 정치·사회사적 의미도 해명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 현상에 대해 논증한 후, 그 서지사적 의의에 대해 시론해 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 불서 간행의 양적 추이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에는 간행 시기와 장소, 化主·施主·板書者·刻手 등의 간인 사항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다. 한국의 여타 전적들이 이를 생략하여 연대 고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 비해,⁴⁾ 사찰판 불서는 刊記를 통한 간행 추이와 경위 분석이 용이하다.⁵⁾ 현존 불서와 『실록』 기사 등을 통해 볼 때, 조선조 기인 15세기까지는 국가와 왕실이 불서를 간행하였지만, 1500년 왕비 愼氏의 해인사 대장경 인출 사례를 마지막으로, 국가나 왕실의 직접적 지원에 의한 불서 간행이나 대규모 인출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⁶⁾ 16세기 이후에는 사찰판

3) 손계영, “출판문화사 연구현황과 생활사료의 접근,” 『영남학』 13(영남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 389-387.

4)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2006), 8.

5) 서적 간행 현황의 조사 방법으로는 서적을 간행하였다는 기록을 조사하는 방법, 당시 작성된 冊板目錄을 조사하는 방법, 현존 서적이나 현존 목판의 刊記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불서의 경우 조선시대 책판목록이나 관찬사서에서는 그 간행 정보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16세기 후반의 책판목록인 『攷事撮要』에 수록된 968종의 서적 중 불서는 4종이 확인될 뿐이며, 『실록』에서도 15세기 이후에는 불서 간행 관련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6) 천혜봉, “朝鮮前期 佛書版本,” 『한국서지학연구』 1991, 705. ; 『한국서지학』 (민음사), 237. ; 1796년에 正祖의 지원으로 龍珠寺板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간행된 사례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례 외에 국가나 국왕·왕실이 직접적으로 불서 간행에 관여한 사례는 확인되

목판본을 중심으로 불서가 다량 간행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불서 간행의 추이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현존 불서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목록화되어 왔다.⁷⁾ 본고에서는 박상국의 『全國寺刹所藏木板集』⁸⁾에 수록되어 있는 <有刊記佛書木板本目錄>을 토대로 불서 간행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유간기불서목판본목록>에는 주요 불서 소장처의 목록에 근거하여 957여 板種에 이르는 목판본 불서가 수록되어 있다.⁹⁾ 그러므로 이 목록은 현재까지 알려진 불서 종합 목록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록에 누락된 불서도 적지 않으므로,¹⁰⁾ 앞으로 각 소장처에 대한 실사를 통해 추가·보완된 목록이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많은 양의 불서들이 간행되었고,¹¹⁾ 이 <유

지 않는다. 다만 사찰의 불서 간행을 왕실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1562년 高德山 俱衆寺에서 개판된 『佛說長壽滅罪讚諸童子陀羅尼經』은, 1605년 선조의 계비인 仁嬪 金氏의 보시로 인출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나(허홍식, “蒙山德異의念佛話頭: 염불과 화두의 접목,” 『문화와 해석』 9(1999), 191), 이 경우도 불서의 開板이 아니라 소규모 印出일 뿐이라는 점에서 15세기와 같은 직접적인 대규모 지원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明代에도 文定王后와 기타 왕실 妃嬪에 의해 대규모 佛書 제작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서 간행 사례는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왕실의 불서 간행이 16세기부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7) 黑田亮, “刊記附刻朝鮮佛典目錄,” 『朝鮮舊書考』 (岩波書店, 1940), 43-67(총 123서종 210판종); 前間恭作, 『古鮮冊譜』 (東洋文庫); 김원룡, “有刊記佛書目錄初考,” 『書志』 2-1, 1961(총 224서종 426판종);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1974), 247-271, 402-437; 김두중은 각 시기별로 사찰판본을 목록화하였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로 설정한 조선전기에 간행된 사찰판 불서는 총 286판종이며, 그 이후인 조선 후기에 간행된 사찰판 불서는 총 513판종이다. 따라서 그가 조사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서 판본은 총 799판종이다.
- 8) 박상국, 『全國寺刹所藏木板集』 (문화재관리국, 1987).
- 9) “有刊記佛書木板本目錄”은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장서각 등의 기관과 고려대·동국대·성균관대·연세대 등등의 대학도서관 및 기타 개인 소장자의 주요 불서 소장처의 장서목록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 10) “유간기불서목판본목록”을 조사하면서 간행시기가 잘못 기재된 것은 바로잡았다. 이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판본을 다수 발견하였으나 이를 추가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는 “유간기불서목판본목록”이 불서 간행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표본’으로서 충분한 양을 수록하고 있고, 단일 목록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 데이터 오류에 대한 검증도 용이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11) 前間恭作은 조선시대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의 수가 2천여종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하였

간기불서목록판본목록>에 수록된 957판종의 불서 중에 15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사찰판 불서만도 908판종에 이르는 많은 양이다. 그러므로 이 목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불서 간행의 대략적인 추이와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¹²⁾

한편 국가나 왕실이 간행한 왕실판·관판 불서의 경우, 15세기까지 간행되다가 16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는데, 이 조선초의 왕실판·관판 불서는 대부분 희귀본으로써 일반 도서목록을 통해서도 그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 천혜봉은 현존 판본과 함께 관찬사서, 서발문 등의 기록을 조사하여 조선초의 왕실판·관판 불서를 중심으로 조선전기의 불서 판본을 정리하였다.¹³⁾ 이 <朝鮮前期 佛書版本>에는 지금까지 판본과 기록을 통해 알려진 조선초의 왕실판·관판 불서가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조선초 국가와 왕실의 불서 간행 추이와 경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¹⁴⁾

이에 따라 천혜봉의 <조선전기 불서판본>을 통해 조선시대 국가와 왕실이 간행한 불서의 현황을, <유간기불서목록판본목록>을 통해 조선시대에 간행(開板)된 사찰판 불서의 현황을 조사한 후, 이를 세기별로 종합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佛敎典籍의 세기별 간행 추이

구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왕실판·관판	목판(開板)	57	-	-	-	-	57
	활자(印出)	27	-	-	-	-	27
사찰판	목판(開板)	64	301	319	169	55	908

다(前間恭作, 『朝鮮の板本』(松浦書店, 1937), 23).

12) “유간기불서목록판본목록”에 수록된 16세기 이후 간행 불서는 모두 사찰판이었고, 수록된 15세기 간행 불서 중 왕실판·간경도감판이거나 간행주체가 불확실한 5종은 제외하였다.

13) 천혜봉, 앞 논문, 1991.

14) “조선전기 불서판본”에 수록된 15세기 왕실판·관판 목판본 불서는 57판종, 활자본 불서는 27판종이었다. 목판본 불서는 새로이 開板한 판종 수를 조사하였으며, 기존 목판으로 인출한 사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활자본 불서의 대부분은 세종대 이후 인출된 갑인자, 을해자, 정축자, 을유자 등의 금속활자본이나 연산군대 인수대비에 의해 조성된 목활자본도 3종 포함되어 있다.

<표 1>을 통해 조선시대 불서 간행의 거시적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데, <표 1>에서 보듯 왕실판과 관판 불서는 15세기에 간행되다가 더 이상 간행되지 않은 반면, 사찰판 불서는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15세기에는 왕실판·관판과 사찰판 불서가 함께 간행되었으나, 16세기 이후에는 사찰판 불서만 다량 간행된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각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해 <표 1>이 왕실판·관판과 사찰판의 간행량을 비교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왕실판·관판 불서의 수는 현존 판본과 기록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한 것인 반면, 사찰판 불서의 수는 주요 도서목록을 중심으로 현존 판본을 조사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1>을 통해 15세기에는 왕실판·관판과 사찰판 불서가 함께 간행되었으나, 16세기 이후에는 사찰판 불서만 계속 다량 간행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찰판 불서를 통한 조선시대 불서의 간행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사찰판 불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된 표본일 뿐 아니라, 16세기 이후에는 사찰판 불서만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불서 간행량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적이 散逸될 가능성이 크고, 임진왜란(1592~1598)과 같은 큰 전란에 많은 서적들이 燒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위 표를 살펴보면, 우선 조선 초기인 15세기에 간행된 사찰판 불서가 적지 않게 현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불교제도가 선교양종의 승정체제로 개혁된 15세기에도 적지 않은 사찰판 불서가 간행되고 있었다. 국가와 왕실 주도의 목판본 및 활자본 불서 외에도 사찰에서 적지 않은 불서가 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찰판 불서의 간행량은 15세기에 비해 16세기에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간행량 수준은 17세기까지 지속되다가 18세기에 다소 감소하여, 19세기에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적이 유실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세기 이후의 불서 간행량 감소 추세는 뚜렷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시대에 사찰판 불서 간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6·17세기였다.¹⁵⁾ 17세기는 임진왜란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해 전적의 간행이

활발하였고, 임진왜란 당시 승군의 활약으로 인해 불교계의 사회적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에 따라 17세기에 불서 간행이 활발했던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지 않으나, 16세기에 불서 간행이 활발했던 현상은 기존의 일반적인 서지사·불교사 인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불교사적 관점에서 16세기는 불교가 가장 침체했던 시기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산군대와 중종대는 폐불기로 규정되고 있고, 명종대에 일시적으로 불교가 중흥하였으나 선조가 즉위한 후 다시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사 전개에 대한 이러한 이해로는 16세기에 불서가 사찰에서 활발하게 간행되고 있었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16세기의 사찰판 불서 간행량은 15세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다. 15세기와 16세기가 연속적 시기였고 그 사이에 큰 전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나, 불서 간행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16세기에 사찰판 불서 간행이 급증하였다고 규정하여도 무방할 듯하다.¹⁵⁾ 일단 <표 1>을 통해 볼 때 왕실판·관판 불서가 더 이상 간행되지 않게 된 16세기에, 사찰판 불서 간행은 증가하여 다량 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6세기말에 임진왜란으로 많은 전적이 소실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17세기보다 16세기에 더 많은 불서가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16세기에 가장 많은 불서가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의 서지사·불교사 인식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15) 黑田亮은 조선전기 15·16세기의 불서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했다고 평가하여(黑田亮, 앞 책, 38쪽), 16세기에도 불서 간행이 양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17세기에도 불서 간행량이 지속되었다는 점은 간과하였다. 조선시대 불교쇠퇴론에 의해 조선후기 불교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일본인 학자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16) 목판본이 활자본보다 서적의 대량 인출과 지속적 인출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서 서적의 유통량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목판본이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16세기에 불서 간행이 급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16세기 불서 간행의 양적 증대

16세기에 불서 간행량이 증가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15·16·17세기의 불서 간행량을 시기별로 세분하여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사찰판 불서 간행량 추이와 비교하기 위해, 먼저 15세기 왕실판·관판 불서 간행량을 국왕재위기간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조사한 후, 표로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5세기 王室版·官版 불서의 시기별 간행 추이

기간	15세기				
	太祖·太宗	世宗·文宗·端宗	世祖·睿宗	成宗	燕山君
	1392-1418	1419-1454	1455-1469	1470-1494	1495-1505
	27년	36년	15년	25년	11년
목판본(개판회수)	3	6	41	7	-
활자본(인출회수)	-	4	18	2	3

위 표에서 보듯, 15세기 국가와 왕실이 불서를 지속적으로 간행하였으나, 세조대에 특히 다량의 불서가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조대에는 刊經都監을 통해 언해 불서를 포함한 목판본 불서와 활자본 불서가 다수 간행·인행되었다. 반면 여타 왕대에는 상대적으로 불서 간행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는 조선초기는 불교억압기이며 세조대는 예외적인 흥불기였다고 하는, 기존의 불교사 인식에 대체로 부합하는 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15·16·17세기 사찰판 불서의 간행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15·16·17세기를 국왕재위기간, 전란 등을 기준으로 시기를 세분하여 각 시기별 불서 간행량을 조사하는 한편, 그 추이 분석이 용이하도록 불서의 연간 평균 간행 횟수를 산출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5·16·17세기 寺刹版 불서의 시기별 간행 추이

기간	15세기				16세기		
	太祖·太宗	世宗·文宗·端宗	世祖·睿宗	成宗	燕山君	中宗前半	中宗後半
	1392-1418	1419-1454	1455-1469	1470-1494	1495-1505	1506-1525	1526-1545
	27년	36년	15년	25년	11년	20년	20년
불서간행 (관종수)	10	22	5	22	10	15	70
연간평균 간행횟수	0.37	0.61	0.33	0.88	0.83	0.75	3.50
기간	16세기			17세기			
	明宗	宣祖前半	壬辰倭亂期	宣祖·光海君	仁祖	孝宗·顯宗	肅宗前半
	1546-1567	1568-1591	1592-1598	1599-1622	1623-1648	1649-1674	1675-1700
	24년	24년	7년	24년	26년	26년	26년
불서간행 (관종수)	73	138	2	63	98	75	84
연간평균 간행횟수	3.17	5.75	0.29	2.63	3.77	2.88	3.23

위 표를 통해 15·16·17세기의 사찰판 불서 간행량 추이를 살펴보면, 개국초부터 16세기 초인 중종 전반기까지는 대체로 그 간행량이 일정하다가, 16세기 중반인 1530년대경, 중종 후반부터 그 간행량이 4배 이상 현저히 증가한 후 대체로 일정하게 지속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전인 1570~80년대의 20여년간, 선조 전반은 증가한 간행량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불서 간행이 활발한 시기였다. 이처럼 사찰판 불서 간행량은 중종후반을 기점으로 증가한 후 대체로 일정량 이상으로 유지되는 추세였다.

한편 사찰판 불서 간행량은 조선전기 각 시기의 불교정책들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불교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태종대와 세종대, 억불·폐불기로 규정되어 왔던 성종대와 연산군대에도 불서 간행량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른바 흥불정책기였다고 하는 세조대와 명종대에도 전후 시기에 비해 그 간행량이 증가한 것도 아니었다.¹⁷⁾ 16세기말 임진왜란기에는 불서 간행량이 급감하여

전란이 불서 간행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조선전기의 불교정책들이 불서 간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수치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폐불기라고 규정되어 왔던 중종후반에 불서 간행이 급증하였고, 문정왕후 사후 다시 불교가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선조 전반에 조선시대를 통틀어 불서 간행이 가장 활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전기의 불교정책에 따라 불교계가 침체와 부흥을 거듭했다고 하는 기존의 불교사 인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므로, 중앙과 지방 불교계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 등과 같이 국가 불교정책의 영향이 큰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세기는 불교계의 극심한 침체기였다고 알려진 시기나 불서 간행은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우선 불교사적 관점에서 이 시기의 불서 간행 양상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16세기에 불서는 큰 지역차 없이 전국의 지방 사찰에서 고루 간행되었으며, 영남 사림의 대표적 근거지인 안동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¹⁸⁾ 그리고 16세기부터 사찰에서 다수의 刻手를 동원하여 여러 종의 불서를 단기간에 다량 간행한 이른바 ‘대규모 開板佛事’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된다.¹⁹⁾ 이 대규모 개판불사는 18세기까지 지속되었으나 19세기에 이르르면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대규모 개판불사의 실행 추세는 불서 간행량의 증감 추이와 일치한다.²⁰⁾ 곧 사찰에서 여러 종의 불서를 단기간에 판각하여 다량 간행한 대규모 개판불사를 벌임으로써, 16·17·18세기에 불서 간행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개판불사의 실행은 각 사찰에서 특정한 목적 또는 의도로 불서를 다량 간행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간행 불서의 종류 분석을 통해, 당대의 사상·신앙 경향에 대한 추이 분석도 가능하다. 16세기 이후 사찰이

17) 명종대에 문정왕후와 왕실에 의해 많은 불화가 조성되었고 법회가 성대히 실행되었지만, 불서가 간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명종의 지원으로 寫經이 이루어진 사례 2건만이 확인될 뿐이다. ; “寫經跋”·“華嚴經後跋”, 『懶庵雜著』, 『한국불교전서』 7, 577-580.

18) 손성필, “16세기 조선의 불서 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사학과, 2007), 15-16.

19) 김상호,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도서관학과, 1990), 24-26.

20) 손성필, 앞 논문, 2007, 24-25.

다량의 불서를 조직적으로 간행하였던 만큼, 어떤 불서를 간행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당대의 사상과 신앙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16세기에 간행된 불서의 종류를 분석해 보면, 『妙法蓮華經』과 『父母恩重經』, 水陸齋儀式集, 蒙山 德異 관련 불서, 履歷課程 불서가 다량 간행되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불서 간행 경향이 뚜렷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법화경』과 『은중경』, 수록재의식집은 대체로 16·17세기에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던 반면, 몽산 덕이 관련 불서는 16세기에 다량 간행되다가 17세기 중반 이후 간행되지 않았고, 이력과정 불서는 16세기 후반에 다량 간행되기 시작하여 17세기에도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불서 간행 경향과 그 추이는 당대 불교계의 동향과 불교 사상·신앙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²¹⁾

한편으로 관찬편년사서인 「실록」 기사를 통해 16세기 불교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당시의 불서 간행 급증 요인을 상정해 보면, 우선 15세기까지 국가·왕실이 불서를 다수 간행하였으나 16세기부터 더 이상 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16세기부터 지방 사찰의 불서 간행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더구나 16세기 초인 연산군 말기에 선교양종의 승정체제가 붕괴되고 종종 초반인 1516년에 왕실의 불교재의인 기신재가 폐지된 후, 국가는 성리학적 교화론 이념에 따라 승려와 사찰을 사실상 방임하였으며, 1530년대부터 승려와 사찰이 증가하였다는 현실 인식이 나타남에 따라 불교정책이 재논의되어 도첩제의 일종인 승인호패제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승려와 사찰이 증가하였다는 신료의 인식이 나타난 이 1530년대에 불서도 그 간행이 급증하였다는 점은 주목되며, 특히 신료들에 의해 승려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된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불서의 간행도 가장 활발하였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국가가 승려 추쇄나 사찰 철폐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하지 않아 다수의 사찰과 승려가 사적 영역에서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곧 성리학적 교화론 이념에 따른 이 시기의 불교정책이 불서 간행 급증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21) 16·17세기의 불서 간행과 그 사상 경향에 대해서는 손성필, 앞 논문, 2013, 129-162과 215-233 참조.

또한 중종대에 왕권 약화와 사림세력 대두로 인해 승정체제가 복구되지 못하고 기신제도 폐지되었지만, 내수사를 통한 왕실의 私의 佛事가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15세기 말까지 왕실의 불서 간행이 이어졌고, 16세기 중반 문정왕후를 위시한 왕실이 선교양종을 복구하여 조종의 선왕·선후에 대한 불교재의를 공식적으로 설행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중종대 사찰에 대한 왕실의 사적 지원은 불서 간행이 급증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기반 중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²²⁾ 이처럼 16세기 전반이 이른바 폐불기라는 불교사 인식으로는 이 시기 이러한 불서 간행의 급증 현상을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불서 간행 양상은 당대 불교계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불교사적 관점에서 그 연구가 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16세기 불서 간행 증대의 서지사적 의의

조선시대 불서 간행의 추이는 불교사적 관점과 함께 서지사적 관점에서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서지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조선초기에는 국가가 발달한 활자 인쇄기술로 교서관, 주자소 등을 통해 여러 서적을 간행하였고, 16세기 이후에는 재지사족이 성리학 서적을 지방에서 간행·보급해 갔으나, 임진왜란으로 많은 전적이 소실되어, 전후 그 복구를 위해 간행사업이 활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전하는 임진왜란 이전의 전적은 희소하고, 임진왜란 이후의 전적이 대부분 현전하게 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고 하였을 때,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7세기와 같은 수준의 양이 현전하고 있는 16세기 간행 불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 16세기에 현전하는 불서보다 크게 많은 양의 불서가 간행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어 그 중 극히 일부만이 현전하고 있는 것인지, 성리학 서적의

22) 16세기의 불교정책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손성필, 위 논문, 2013, 50-101 참조.

간행·보급이 확대되던 16세기에 불교 서적의 간행·보급도 함께 확대되었던 것인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불서 간행량의 추이는 출판문화사적 관점에서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연구과제인 것이다.

현재 조선시대 서적 간행량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논한 연구는 없으나, 조선시대에 간행된 四書, 『논어』·『맹자』·『대학』·『중용』의 현존 판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가 있어 참조가 된다. 이 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사서 판종수를 세기별로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³⁾

<표 4> 조선시대 四書 간행의 세기별 추이

구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四書 간행(판종수)	8	12	61	60	52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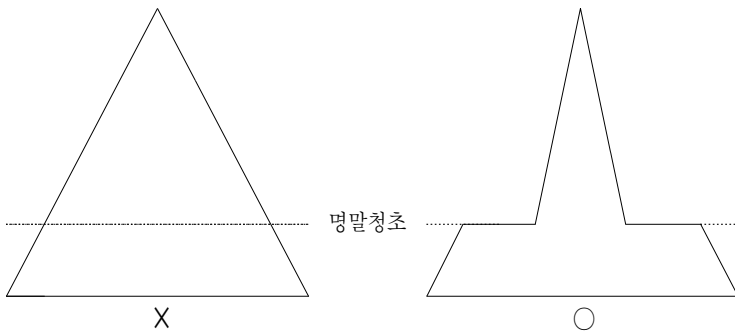
위 표를 통해 볼 때 사서는 15·16세기에는 간행량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17세기에 간행량이 급증하여 18·19세기까지 그 간행량이 대체로 지속되었다. 四書는 성리학 학습과 한문학 교양을 위한 핵심 서적으로서, 국가와 사족의 서적 간행을 대표할 만하다. 그런데 불서 간행은 16세기 중후반에 급증하였던 반면, 사서 간행은 17세기에 급증하였으며, 불서 간행은 19세기에 급감하였던 반면 사서 간행은 19세기에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불교전적과 유교전적의 간행 추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앞으로 출판문화사 뿐만 아니라 사상사적 관점에서도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닌가 한다.

다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 서지사의 전개를 논할 때 임진왜란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란을 계기로 많은 서적들이 소실·유실되었고, 전후 그 복구를 위해 서적이 간행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필사본, 고문서, 책판, 간행본 등이 각각 전란으로 인한 일실 위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필사본과 등록류, 고문서

23) 안현주,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2007). ; 조선시대 사서 판본 254종 중 간행년도가 파악된 것은 193종이고, 미상인 것은 61종이었다. 이 조사에는 언해본과 활자본이 모두 포함되었다.

등은 소량 전사되거나 유일본인 경우가 많고, 서적 간행을 위한 책판도 유일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란에 의한 소실·유실의 위험이 크다. 반면 이미 다량 간행·유포된 서적의 경우 전란 후에도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 다량 간행·유포되었기 때문에 전란에도 한 부 이상의 서적이 보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이는 애초에 서적을 간행하는 목적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서와 사서 간행본의 보존에 임진왜란이 미친 영향이 필사본만큼 아주 크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불서와 사서의 현존 판종 현황이 대체로 당대의 서적 간행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위 두 표에서 제시한 대로 불서와 사서는 16·17세기에 간행이 급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불서와 사서 모두 임진왜란과 크게 상관없이 16·17세기에 간행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국의 출판물 간행량 추이가 참고가 된다. 중국의 출판문화사를 논한 大木康의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에 수록된 모형을 그대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⁴⁾



<도 1> 중국의 출판물 간행량 추이 모형

大木康은 출판물이 인쇄술 발명 이래 점진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명말청초에 급증하였다고 논하면서, 위와 같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현존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명말청초, 곧 16세기에서 17세기

24) 大木康 著,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출판, 2007), 9.

에 걸친 시기에 서적 간행량이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출판물의 급증은 가정·만력 연간, 곧 16세기 중후반의 어떠한 큰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宋代 인쇄에 대한 편중’, ‘활자 인쇄의 중시’라는 연구경향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송대 인쇄와 활자 인쇄에 치중한 연구경향이 중국 출판문화사의 전개를 제대로 살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⁵⁾ 大木康의 이러한 지적이 아니더라도, 명말청초의 출판업 성행과 출판량의 증가는 의미있는 문화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출판문화사 전개 추이를 통해 볼 때 주목되는 것은, 중국도 특정 시기에 서적 간행량이 급증하였으며, 그 시기가 16·17세기, 특히 16세기 중후반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조선시대 불서와 사서 간행량의 추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송대 인쇄와 활자 인쇄에 치중하는 연구경향에 대한 大木康의 비판은, 고려시대 인쇄에 편중되고, 활자 인쇄를 중시하는 한국학계에도 유효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의 서적 간행 추이와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서적 간행의 구체적 양상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명말청초 중국은 상업 출판이 발달한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상업 출판이 발달하지 않았다. 특히 16세기 서적 간행량을 견인한 것은 사찰의 불서 간행과 지방관과 재지사족의 서적 간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6·17세기 서적 간행 급증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구명하는 것은 한국 출판문화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연구과제인 것이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해 볼 때, 16세기는 사림에 의해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성리학 서적에 대한 주석과 언해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주자서절요』와 같은 성리서가 편찬되었으며, 『소학』·『경민편』·『근사록』·『이륜행실도』 등의 윤리교화서와 성리학 입문서가 간행·보급되었다.²⁶⁾ 서적 유통을 원활

25) 大木康 著, 노경희 역, 위 책, 2007, 8-10.

26) 김항수, “16세기 士林의 性理學 理解: 書籍의 刊行·編纂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서울대 국사학과, 1981). ; “16세기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규장각』 10(서울대 도서관, 1987). ; “『三綱行實圖』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진단학회, 1998). ; 김훈식, “16세기 『이륜행실도』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역사학보』 107(역사학회, 1985). ; “중종대 ‘警民編’ 보급의 고찰,”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90). ; “『三綱行實圖』 보급의 社會史

히 하기 위한 書肆의 설치가 1519년(중종 14) 조정에서 제기되어 1551년(명종 6)까지 논의되었으며, 1577년(선조 10)에는 민간에서 朝報를 간행하여 판매하다가 조정에 의해 금지된 사건도 있었다. 또한 민간 상업 출판서적인 坊刻本과 민간 서적 수입·판매상인 冊僧가 출현한 것도 16세기 중후반으로 알려져 있다.²⁷⁾ 이처럼 민간의 서적 출판·유통 역량이 성장해 간 한편, 국가의 서적 간행·유통 구조도 변모하였다. 15세기에는 국가 주도로 교서관·주자소나 지방 관찰사를 통해 서적을 간행·유통하는 구조였던 반면, 16세기에 이르면 재지사족이 지방관아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서적 간행과 유통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해 갔으며, 16세기 중반부터 설립된 서원에서 서적을 직접 간행하기도 하였다. 16세기에 서적 간행과 유통이 국가 주도, 공급자 중심에서, 재지사족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 간 것이다.²⁸⁾ 이러한 연구성과들이 대체로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서적 자체에 대한 조사·분석은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나, 서적 간행과 유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급속한 변화가 16세기에 태동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16세기 중후반의 불서 간행 급증에 대한 해석에는 이러한 서지사의 전개 추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16세기에 성리학 보급이 확대되어갔다는 인식에 따라 불서 간행은 주목받지 못하였고, 16세기 성리학 교화서와 입문서의 간행이 불교에서 유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왔다.²⁹⁾ 그러나 16세기는 사찰에서 불서가 언해되었고, 『誠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과 같은 불교입문서, 『禪源諸詮集都序』·『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大慧普覺禪師書』·『高峰和尚禪要』(이상 四集)와 같은 불교교육서,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와 같은 불교의례서, 『父母恩重經』과 같은 불교교화서가 다량 간행되었으며, 『禪家龜鑑』과 같은 불교저술이 편찬·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的 고찰,” 『진단학보』 85(진단학회, 1998).

27) 우정임,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 사학과, 2009), 31-58.

28) 우정임, 위 논문, 2009, 176.

2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삼강행실도를 통한 지식의 전파와 관습의 형성』 (휴머니스트, 2008), 96-97.

유교서적 간행에 대한 일면적 분석만을 토대로 당대 사회를 일반화한 해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여러 간행서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성리학의 핵심 서적들인 사서의 간행이 급증한 것이 17세기였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불서 간행이 16세기 중후반에 이미 급증하였다는 점은 주목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서적을 다량으로 간행할 수 있었던 인적·물적·경제적 기반이 무엇이었으며, 성리학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던 사회에서 어떻게 불서가 다량 간행·유통될 수 있었는지도 해명되어야 과제인 것이다.³⁰⁾

그러므로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는 16세기가 서적의 간행과 보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에 대한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불교계에 국한된 현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거시적 출판문화사 전개의 일부 분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명되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본고에서 논한 바와 같이 16세기에는 사찰판 불서 간행이 크게 증대되었다. 중종중반인 1530년대에 그 간행이 4배 가량 증가하여 17세기까지 그 간행량이 대체로 지속되었고, 특히 임진왜란 전인 1570~80년대, 선조 전반은 증가된 간행량의 두 배에 이르는 불서가 간행된 시기으로써, 조선시대를 통틀어 불서 간행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16세기가 임진왜란 이전임을 고려한다면 16세기는 17세기에 비해 더 많은 불서가 간행된 시기였을 가능성이 크며, 불서 간행이 뚜렷한 증가 추세인 시기였던 것이다. 우선 이는 중종대와 선조전반이 불교계의 극심한 침체기였다고 하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불교사 인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30) 17세기 전반 한문 방각본이 사찰에서 간행되기도 하였고, 각수 중에 승려가 많았으며, 사족이 서적을 사찰에서 간행·보관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불교계가 조선 사회의 서적 간행·유통 확대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도 추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다.

이므로, 근래에 조선시대 불교사 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그 해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불교사적 관점과 함께 서지사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해명되어야 할 현상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四書의 간행량 추이, 서적 간행과 보급에 관한 당대의 기록, 유교전적의 간행 경향, 중국의 출판물 간행 추이 등을 통해 볼 때, 16세기는 불서 뿐 아니라 서적의 간행과 보급이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6세기 사찰판 불서 간행의 증대는 16세기에 서적 간행과 보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데 대한 근거인 동시에, 그러한 거시적인 문화사 변동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개별 판본과 인쇄기술 중심의 연구, 유교서 중심의 조선시대 서지사 이해로는 해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므로, 서지문화사적 관점에서 그 양상과 의미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자료집]

『古鮮冊譜』(前間恭作 編, 東洋文庫).

『全國寺刹所藏木板集』(박상국 편, 문화재관리국, 1987).

『韓國佛教全書』(동국대출판부).

[웹DB]

국가기록유산(문화재청, <http://www.memorykorea.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서울대학교, <http://e-kyujanggak.snu.ac.kr>).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http://lib.dongguk.edu>).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korcis>).

[저서]

-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서울: 신구문화사, 2010.
-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삼강행실도를 통한 지식의 전파와 관습의 형성』. 서울: 휴머니스트, 2008.
- 大木康 著,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서울: 소명출판, 2007.
- 黒田亮.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1940.
- T.F. Carter 著. 강순애 · 송일기 공역. 『인쇄문화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학위논문]

- 김상호.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도서관학과. 1974.
- 남희숙.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眞言集과 儀式集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국사학과. 2004.
- 손성필. “16世紀 朝鮮의 佛書 刊行.”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사학과. 2007.
-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 사학과. 2013.
- 안현주. “朝鮮時代 ‘四書’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2007.
- 우정임.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 사학과. 2009.
-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 사학과. 2010.

[일반논문]

- 김향수. “16세기 士林의 性理學 理解: 書籍의 刊行 · 編纂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서울대 국사학과, 1981).
- 김향수. “16세기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규장각』 10(서울대 도서관, 1987).

- 김항수. “『三綱行實圖』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진단학회, 1998).
- 김항수. “조선 전기 삼강행실도와 소학의 편찬.” 『한국사상과 문화』 19(한국사상과문화학회, 2003).
- 김훈식. “16세기 『이륜행실도』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역사학보』 107(역사학회, 1985).
- 김훈식. “『三綱行實圖』 보급의 社會史的 고찰.” 『진단학보』 85(진단학회, 1998).
- 손계영. “출판문화사 연구현황과 생활사로의 접근.” 『영남학』 13(경남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
- 손성필. “『眞心直說』 판본 계통과 普照知訥 찬술설의 출현 배경.” 『한국사상사학』 38(한국사상사학회, 2011).
- 옥영정. “17세기 개인출판의 四書諺解에 관한 고찰: 1637년 간행의 四書諺解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27(서지학회, 2004).
- 옥영정. “한문방각본 간행에 대한 서지적 고찰.”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조선후기 상업출판과 방각본』 (열상고전연구회, 2009).
- 이종수.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충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21(불교학연구회, 2008).
- 천해봉. “朝鮮前期 佛書版本.” 『서지학보』 5(한국서지학회, 1991). (『한국서지학연구』, 삼성출판사, 1991 재수록).

